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예레미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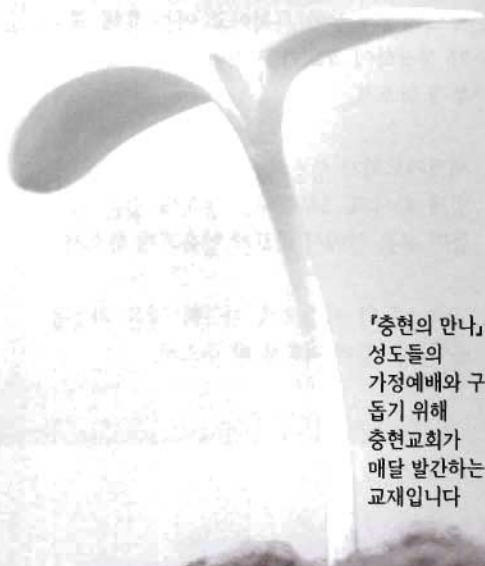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예레미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3월의 '행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광야에 놓인 가난한 이들에게 행복자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자에게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대대로 노예였던 이들에게 행복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사람들은
위험에 놓인 자에게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행복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전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시 59:1)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3월에 위임목사 김 성 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다. 그러나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전 역사에 걸쳐 진행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다. 즉, 성경은 예수의 구속사역으로 인한 성도의 구원이라는 한 동일한 주제의 여러 측면과 그 전개역사를 다양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이 동시에 갖고 있는 이 같은 통일성(統一性)과 다양성(多樣性) 때문에 성경 각 부분을 대할 때 그것을 그 자체로서는 물론 성경 전체의 일부로서도 필히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레미야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의 죄악 중의 하나를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13). 여기서 '생수의 근원 되는 나'란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라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하셨다.

2)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23:5)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삼하 7:8-16)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마 1:1, 20 : 계 22:16).

3) 선택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

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3:15).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에 따라 영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끝내는 소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4) 새 언약의 주체로서의 그리스도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는 구약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백성들을 외식에 빠뜨리게 할뿐이었던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옛 언약 곧 구약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셨는데(31:31-34), 이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게 된다(눅 22:20; 고전 11:25; 히 8:8,9). 이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은 옛 언약과는 달리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으며 영원히 패하여지지 않는다. 또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도 육적 이스라엘 곧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5) 공평과 정의로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유다는 신정왕국(神政王國)으로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택한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유다 말기의 왕들은 이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백성을 통치했으며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에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우리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23:5,6). 이 예언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 사역으로 일단 성취되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고통과 다가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고통은 다릅니다. 분명 고통이 지금 내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이 그것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위험에 순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듯 그것이 지나도록 기다릴 수 있다면 곧 그 위험은 사라질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위험을 자초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도를 요청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해 이방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그것을 무시하면 죽음이 기다릴 뿐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대가가 어떻다는 것을 실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죄와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고통들이 반드시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체롭지 못하게 처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되돌아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본 장은 왕들에게 원인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다의 왕들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들은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세 명의 왕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왕이 되었거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했으며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선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 요시아왕이 있었음에도 후대에 들어서 이러한 선정(善政)들이 잊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강력한 징계를 선포하고 이에서 돌아킬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지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삼고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겸손하게 지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 고통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체로운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비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있어도 그 위에는 어김없이 태양이 비취고 있습니다. 비와 구름이야 지나가는 것이지만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붙잡아 주고 나를 지탱해 주는 소망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태양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왕들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징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가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포로에서 되돌릴 것이며 가나안을 회복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 우리의 의”로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가 참 목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회복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 얻는 자들을 건지시고 다시 자신의 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믿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은 모든 것을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으로 이분화(二分化)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얻어야 할 교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길이 보이고 몰랐던 부분이 명확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지켜주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시드가가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하여 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왕국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유다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되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② 충헌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포로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가 비록 심판을 받지만 그들은 언약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성전기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도가 지나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체를 따라 다닌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공정하게, 봉사를 할 때에도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거나 개인적인 징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행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서있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옳은 소리를 하면 오히려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안타깝지만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말할 것은 말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닙니까?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알이 선포하며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선지자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방백들은 우리야의 예를 들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 우리야처럼 외국으로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내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수근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의견에 동의하고 마음속으로나마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합니다. 또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남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15절까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겨야만 멸망을 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16-22절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유다 백성의 살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이방 족속인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나라를 섬겨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경고는 유다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에 반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내가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이런 거짓의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신앙을 혼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의 대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포로와 성전 기구들을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1-5절). 그리고 자신의 예언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취하여 자신의 예언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10,11절). 그러나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보내지 않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12-15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에 대한 형벌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7절).

주님께서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케 할 것이라고 예언 하셨습니다(마25:5,2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고전 12:10). 또한 이런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일까요?

먼저 전반부인 1-23절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어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1-14절). 후반부인 24-32절에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섞여 살면서 유다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범죄 함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받게 될 참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종종 우리를 죄악 된 행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상황에만 연연하지 말고 보다 멀리 펼쳐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 27-29장이 남 유다를 향해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면, 30장- 33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위로의 책' 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1-11절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고통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감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24절에서도 상처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재건(18절)과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19,20절), 그리고 주권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21,22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입니다(9절). 이것은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시절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이 실제 왕위에 오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 바벨론에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70년만의 귀환의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의 멍에가 완전히 벗겨지고 원수인 사단이 진멸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섬기게 될 날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멍에가 완전히 벗겨지고 사단이 진멸되는 날을 고대하며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것이며 이 율법을 준수할 때 약속된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중한 율법이 파기되었으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31절).

구약 백성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해 부패해진 내적 본성을 가진 그들에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며, 행할수록 자신은 형벌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롬 7:7-9).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적 성품 자체를 변화시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33절). 새 언약은 어떤 강제적인 규정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변화시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요 14:17,26; 행 7:55).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언약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에 의해 포위된 긴박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시위대 뜰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1-5절),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을 매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6-7절).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밭을 매입하게 됩니다(8-15절). 이것은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 시켜 본래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감추어진 오묘한 섭리를 확신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지금은 죄 값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그들이 회개할 때 밭을 회복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38-42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허물진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받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義)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몸이 시위대의 뜰에 갇히고 바벨론의 군대가 온 유다를 포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회복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충실히 전합니다. 30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긴 설교는 본 장에서 메시아 파송,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10-13절).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는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다윗 왕권의 영원한 회복(14-16절), 그리고 다윗 언약과 영원히 계속될 제사장직의 회복(18-26절)을 약속한 것은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영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안전을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을 느낄 때는 없었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과 힘이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과 고통을 만나 괴로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러 성읍들이 바벨론에게 함락 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성도 포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애굽 군대의 지원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현실을 바르게 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시드기야 왕에 대해 예언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도 시드기야왕은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어 불태우도록 결정했으며, 시드기야는 반란죄로 체포되어 포로로 잡혀갈 것과 다행히 칼에 죽지 않고 편안하게 죽게 됩니다(1-7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포위 당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떠나자 노예들을 다시 끌고 오는 사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8-16절). 언약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심판뿐입니다(17-22절)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도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차를 타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깨어지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죄악이 넘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있겠습니까? 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레갑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으로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 성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레갑 족속을 예로 들어 예레미야는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족속을 시험합니다. 예레미야는 레갑족속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하지만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의거하여 맛 좋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1-11절).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도 두지 말고, 평생동안 장막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자손들이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한 레갑족속의 신실한 행위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유다의 배역을 책망하고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죽은지 오래된 선조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 죄의 심각함이 있습니다(12-19절).

레갑 족속의 신실한 삶은 경건한 삶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지켜 올바르게 살아가는 레갑 족속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행을 좇아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예언을 기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즈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갈고미스 전투에서 애굽군대를 대파하고 영토를 더욱 넓혀갈 때라 유다도 위기에 직면 하게 됩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하여 마침내 유다는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온 백성들에게 기록된 예언이 낭독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예언이 낭독될 때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미가야와 방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언의 내용이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요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예레미야가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레미야와 두루마리를 받아쓴 바룩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으라는 충고의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왕과 신하들입니다. 이들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극도로 분노하여 두루마리를 모두 불에 태워버리고 기록자의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룩은 숨어서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왕은 여호야김과는 달리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왕하 22, 23장). 이는 여호와 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거나 인간적인 교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기도 제목 / ①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 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함락되고 맙니다. 37장과 38장은 예루살렘 함락직전의 3년 동안에 예레미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1-5절). 이 때, 갈대아 인들은 애굽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일시 철수해 있었습니다. 친 애굽 정책을 고수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굽은 유다를 더 이상 돕지 못하고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6-10절).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첩자라는 혐의를 받아 방백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11-15절). 며칠 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도움으로 풀려나 시드기야와 은밀하게 대면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굳건한 선지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악한 세력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갑시다

기도 제목 / ① 환난을 당해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의 필연적으로 시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며 웅덩이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방백들은 심한 반감을 느끼고 왕에게 그를 죽일 것을 간청합니다. 시드기야는 구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방백들이 두려워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1-6절). 이러한 상황에서 구스인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7-13절). 방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던 시드기야 왕은 이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면담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하지만 시드기야는 항복을 두려워하여 듣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의 앞에는 참혹한 멸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예레미야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14-28절).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훼방합니다(벧전 5:8).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적절하게 믿는 자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2)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그늘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때(B.C. 605)와 19대 왕 여호야긴 때(B.C. 597)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20대 왕 시드기야 제9년(B.C. 588)에 3차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8개월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B.C. 586년, 시드기야와 11년). 이로써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이후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남쪽 유다 왕국은 20대 345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은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진입을, 4-10절은 느부갓네살의 포로정책을 설명합니다. 11-14절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선대를, 15-18절은 에벳멜렉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며 그로 하여금 예언의 선포를 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생활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혈통적인 왕조는 끝이 났다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실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의 함락은 유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론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묶여 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준 느부사라단에 대한 내용이며, 7-12절은 흩어져 있는 남은 백성들을 모으는 그다라의 사역을, 13-16절은 그다라 암살에 대한 밀고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살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험에서 건져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느부사라단은 도망 온 자들이나 포로들에게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협력할 것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패망해 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의 함락 직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이주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강제로 잡혀가거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본 장 1-3절은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라를 살해한 사건을, 4-10절은 이스마엘이 암살을 은폐하기 위해 성전 순례자 70명을 살해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떠난 사건을, 11-15절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 사건을, 16-18절은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인해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계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속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본주의적 신앙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과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 5:15).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매우 신앙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이미 애굽 이주를 결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41:17,18절).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중보기도의 요청은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교만한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까지는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1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히 보호받고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며, 13-22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이주할 경우 재앙을 받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의 전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선악간의 기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 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動機)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자신을 바로 살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불순종은 은혜의 길을 막아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유다의 남은 백성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 이주를 단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13절은 유다 백성들의 애굽 이주와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난처 및 구원자로 의지한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B.C.581년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애굽 본토를 침공함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완악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마땅히 죽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다 남은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로 의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온 우주와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는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10절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 선조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고, 11-14절은 우상 숭배한 애굽 거주 유대인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15-19절은 앞에서 경고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으며 20-30절은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한 예레미야의 최종적인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경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교적 타락의 위험성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여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소망을 늘 새롭게 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2년 총현교회의 표어는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라”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2002년 동안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을 향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집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함으로 바룩을 위로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4절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로 또는 제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뇌를 맞본 사람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라고 말하는 바룩의 고통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고통당하는 것은 각오한 것이지만 어찌하여 사랑하는 바룩까지 나와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원하옵기는 제발 바룩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뽑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상 2장 6절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 46장은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7절 말씀 “내 종 야굽아! 두려워 말라…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입니다.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여 도주합니다. 애굽은 전투에 대비하여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애굽 군사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자신들이 구원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단절됐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내 종 야굽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27절). 구원은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다가옵니다.

“야굽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27절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을 잊고 애굽 군대에 기대를 걸지라도 너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평안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열 개의 열방 가운데 두 번째 블레셋을 향한 예언으로, 블레셋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강한 세력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려고 하는 것은 4절 말씀 “갓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확기가 되면 몰래 산이나 들로 잠입해 들어와 수확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벨론이 북쪽에서 일어나 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요란스러운 소음과 혼란 속에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두로와 시돈에서 그들을 도와줄 자가 다 끊어지고 갓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이 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블레셋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며 괴롭힌 까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자들의 꾀박이 있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 험난한 세상에 와서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멸망과 주님의 백성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악인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모압을 향한 예언입니다. 1-10절은 모압이 심판을 받아 황폐화 될 것을, 11-35절은 심판의 이유가 우상 숭배와 교만에 있음을, 36-44절은 심판의 참담함을, 45-47절은 심판 이후 회복의 소망을 노래함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려고 하는 것은 2절 말씀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입니다.

사실 모압은 비교적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재난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모압은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와 같은 모압의 평탄함에 의문을 품습니다. 모압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우상과 재물에 의지하는 극히 현실적이며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또한 29절은 그들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궁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은 비록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절 말씀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경고를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등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5절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 되는 활을 꺾을 것ियो”입니다.

엘람은 썸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사 22:6). 또한 이웃 종족들에 대하여 매우 잔인하고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겔 32:24). 그런 그들에게 오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 되는 활을 꺾을 것ियो”입니다. 하나님은 엘람 민족의 잔악성과 교만함을 책망하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가 무엇이며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처음 범한 것ियो, 아담이 넘어졌던 범죄입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경계가 되는 죄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혹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권력이나, 지식, 외모 등을 더욱 사모하며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옛날 아사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고백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박에 도와줄 이가 없사 오니…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 계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50장과 51장은 9개의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있습니다. 특히 50장 1-20절은 메대, 바사연합국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21-46절은 비유를 통해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 “열방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기를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5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미움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을 뿐입니다. “열방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기를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예언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저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 전하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1-44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45-5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멸망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54-64절은 바벨론은 멸망하여 다시는 제기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절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입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무력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바벨론.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키질 당하는 왕겨에 불과했습니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민족으로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쓸데 없는 우리를 오직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②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깨게 하여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준비되었습니까?

(성찬주일 설교)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본문 / 고전 11:23~34

들어가면서(서론)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가장 신성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식탁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가장 강렬하게 상기시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충현교회가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성찬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식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로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한 성경공부와 지난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던 '성만찬'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서’ (284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8)

미국 뉴욕 맨체스터 출신의 시인이며 화가인 래드버리(M. A. Lathbury, 1841~1913)는 1877년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열린 전도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크지 어떤 찬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수천의 무리의 허기짐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이 라 칭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를 먹이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양식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은 복잡한 리듬이 아니라 한 박자 한 박자 차분한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차분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전서 11:23~34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23절~24절 - '내 몸'

② 25절~26절 - '내 피'

③ 27절~29절 - '분변' (分辨, judge)

④ 30절~32절 - '판단'

⑤ 33절~34절 - '기다림'

2. 다음주일 설교('준비되었습니까? ')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위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②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 ③ 성찬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죽으심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 ⑤ 성찬은 일회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야 할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⑥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난 후,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자기를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가면서(결론)

1.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일용할 양식을 배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배부실 것을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오셨습니까?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를 준비도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인정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정한 축복을 실천할 준비도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 전,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모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여,
주께서는 나의 주인,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주께서 품으신 순결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오니
주의 거룩하신 명령,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주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오니
나로 하여금
주의 죽으심 기억하며
주의 거룩하신 희생의 제사
가슴 깊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제 2 과

작은 자, 하나님의 도구

찬송 / 508장(주와 같이 되기를)

본문 / 왕하 5:1~14

들어가면서(서론)

나아만은 위대한 성공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왕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에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는 그 계집아이를 종으로 삼아서, 자기 아내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낫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때, 그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 것 없는 작은 소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여러분도 자신을

주와 같이 되기를' (508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이 찬송은 미국의 여류 찬송작가인 화니 제인 크로스비(F. J. Crosby, 1820~1915)가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하고, 목사이며 교회음악가였던 영국 태생의 존 바커스 다이크스(J. B. Dykes, 1823~1876)가 작곡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점자책과 할머니의 낭송을 통해 늘 접하고 자란 그녀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달란트를 통해 그녀는 평생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가끔씩 “나는 장차 ...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의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습 이대로 받으시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의 선율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셋째 단의 임시표가 붙은 선율은 음정에 주의해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사 속에 들어와 찬송하시면 금방 친숙해 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찬양을 통한 신앙고백의 마음으로 찬송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도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열왕기하 5:1~14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1절 - 나아만에 대하여

② 2절~3절 -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

③ 4절~6절 - 아람 왕의 반응

④ 7절 - 이스라엘 왕의 반응

⑤ 8절~10절 - 엘리사의 반응

⑥ 11절~14절 - 나아만의 반응

2. 다음주일 설교(‘작은 자, 하나님의 도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오늘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사람을 사용하심을 언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우리는 마가복음 5:25~34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십시오.

③ 마가복음 12:43에서는 또 다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녀는 비록 보잘 것 없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④ 누가복음 18:38~42에서는 거지요 눈 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께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모두 기록해 보십시오.

- ⑤ 요한복음 6:9에는 ‘오병이어’의 작은 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가면서(결론)

1.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 것 없는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듯,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어부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계십니까?

2.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마 자기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로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판단이나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 앞의 사람은 교만함에 빠질 여지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판단에는 모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3 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번과는 주일 설교와 무관)

찬송 / 137장(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본문 / 마 16:21, 17:22~23a, 20:17~19

들어가면서(서론)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여러 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참석하신 세 번의 유월절과 예루살렘 입성(요 2:23, 6:4, 13:1),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의 예고(마 16:21, 17:22~23, 20:17~20),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의 간절한 계세마네 기도와 시험에 대한 경고(막 14:32~42),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눅 23:55~60),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요 21:15~17)이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정상 주일설교와 다른 본문으로 성경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세 번씩 예언하신 것에 대해 배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관심했다는 것을 의미함

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해당구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마 16:21

② 마 17:22~23a

③ 마 20:17~19

2. 다음의 질문을 서로 나누고 답하세요.

① 마 16:21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마 16:22)
베드로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제시하심으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까?(마 16:23~27)

② 마 17:22~23a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고 후,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마 17:23b, 18:1)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까?(마 18:2~4)

③ 마 20:17~19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마 20:20~21, 24) 제자들과 한 어머니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까?(마 20:22~23, 25~28)

나가면서(결론)

1.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씩이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과 행동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둑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의 상황마다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중심으로 말해보십시오(마 16:24, 18:4, 20:27).
2.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며(마 16:24),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마 18:4),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마 20:27).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가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참 제자로서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

본문 :

제 4 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종려주일 설교)

찬송 / 133장(어저께나 오늘이나)

본문 / 눅 19:28~44

들어가면서(서론)

예수께서 삭개오라고 불리우는 세리장을 구원하신 후, 믿음에 관한 비유를 전하셨습니다(눅 19:1~27 참고). 이 비유는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한 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열 므나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귀인이 떠난 후, 그의 종들은 그가 더 이상 자신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그 귀인은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 장사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남긴 종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숨겨둔 종은 받았던 돈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므나에 대한 비유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종들은 주인이

‘어제거나 오늘이나’ (13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캐나다 태생의 앨버트 벤자민 심프슨(A. B. Simpson, 1843~1919) 목사는 미국 뉴욕 중심가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 생애의 사역을 다시금 바라보고 평생동안 병들고 가난하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전환이 있게 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였고, 그를 도와 찬양으로 섬겼던 제임스 버크(J. H. Burke, 1860~1905)가 작곡하였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이 되는 기쁨의 말씀이며(1절), 모든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겻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셨습니다(2절). 예수님은 배반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의 제자들을 참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3절). 그리고 이제는 언제나 살아 계시고 변함없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어 천국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죄의 대속과 영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삶의 나아짐만을 착각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환호하던 군중들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환호소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함께 지금도 살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쁘게 찬송합시다. 한 마디를 두 박자로 헤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승리를 위해 종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28절).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배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앞에 놓여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9:28~44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28절 - 예루살렘 입성 전의 교훈

② 29절~35절 - 예루살렘 입성 준비

③ 36절~40절 - 예루살렘 입성 광경

④ 41절~44절 -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슬픔

2. 다음주일 설교(‘예루살렘을 향하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다니엘 9:24~26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단 9:24~26과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연관시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③ 예수께서는 스가랴 9:9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하시라”

- ④ 미가 5:2, 7:14, 사 53:3, 5~6, 고전 15:3~4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구절들이 예루살렘 입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미가 5:2

사 53:3, 5~6

고전 15:3~4

미가 7:14

사 53:3, 5~6

고전 15:3~4

- 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눅 19:41). 예수께서 성을 보고 우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하시라”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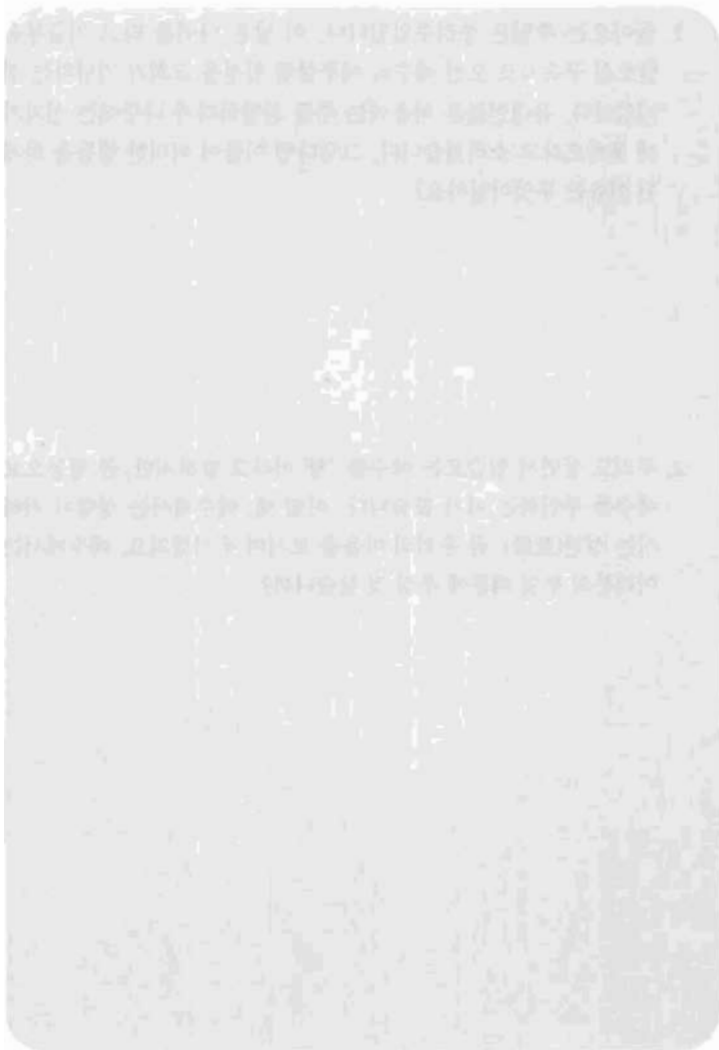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하시라”

나가면서(결론)

1.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은 나귀를 타고 기름부음 받으신 구속자로 오신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교회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주를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일까요?
2. 우리도 살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왕' 이라고 말하지만, 곧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聖殿),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시겠지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우실 것 같습니까?

제목:

본문:



제 5 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주일 설교)

찬송 / 151장(다시 사신 구세주)

본문 / 고전 15:12~15

들어가면서(서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신 이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 교회의 초석(礎石, 또는 모퉁잇돌)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12~15절). 맞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의 부활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며, 모든 증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의 증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학에 있어서 절정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중심이며,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151장)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눅 24:34)

이 찬송은 미국의 교회음악 목사인 알프레드 헨리 액클리(A. H. Ackley, 1887~1960)가 1933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그는 음악가정에서 음악적 재능을 갖고 태어나 일찍이 뉴욕과 런던에서 작곡과 첼로를 공부한 후 교회음악가로 활동하다가, 1914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뒤 교회음악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 속에 묻힌 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정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되어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He Lives)!”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찬송은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 가사인 ‘다시~’를 시작할 때, ‘다’는 약하게 ‘시’는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메 소절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템포는 느리지 않도록 한마디를 두 박자로 해서 확신에 차 있는 감정으로 힘차게 찬송합니다. 특히 후렴에서 더 힘차게 하십시오.

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파하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확신하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전서 15:12~1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2절 -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정리

② 13절 - 부활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

③ 14절 - 부활과 중인의 삶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

④ 15절 - 부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

2. 다음주일 설교(‘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굳이 사도행전을 읽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 주, 첫 날을 ‘주일’ 또는 ‘주의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주, 첫 번째 날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신약성경 27권은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곳을 말해보십시오.

④ 제자들이 담대해진 것은 부활을 목격한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까?(고전 15장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 ⑤ 요한복음 20:18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자, 또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제자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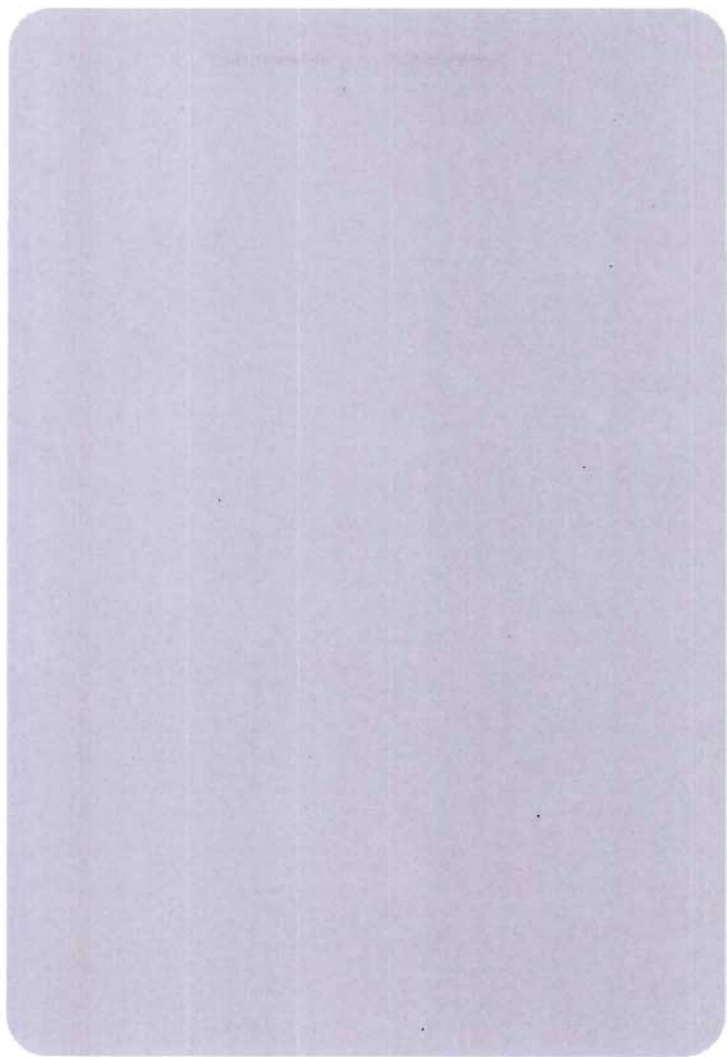
나가면서(결론)

1.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분께 대한 일체의 사건들을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동정녀 탄생, 이적, 교훈,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 그렇다면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2. 예수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빈 무덤이 그 증거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십시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3 과

믿음의 능력

찬 송 / 356장

읽을 말씀 / 삼하 16:5-14

외울 말씀 / 삼하 16:12

‘사랑을 받은 자’ 혹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는 일을 하였으며 그 용모가 아름다웠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양치기(목동)에서 궁중악사, 군대장을 거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 관한 기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11까지(대상 11~29장) 기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시편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8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시 18:1)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 공부를 통해 다윗의 마음과 믿음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합시다.

본문 살펴보기

지금 다윗은 가장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삼하 15:13-16).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다윗을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압살롬을 피하여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16:5, 6, 13)

2. 시므이의 저주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아비새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십시오(16:9, 10-12).

뜻을 생각하며 적용하기

3. 당신에게는 다윗이 당했던 그런 상황(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등등)은 없었습니까? 혹 있었다면 그 때의 심정이 어떠했으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4. 20여년 전에 나발이 자기를 모욕했을 때 다윗은 자제하지 못하고 칼을 빼어 복수하려 했습니다(삼상 25:2-22, 33-34).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인 지금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시 119:100, 창 45:5, 단 4:17, 롬 12:17-21, 눅 9:23)

믿음의 능력은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은 당연합니다. 억울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